

기고



김용호 화순소방서 소방서장

우리집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나의 소중한 가족, 혹은 평생동안 이루어낸 나의 재산을 순식간에 잃는다는 생각은 그 누구에게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라는 단어에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난 3년간(2017~2019) 전남에서는 주택에서 1,69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7명 사망했고, 재산피해는 120억원에 달했다.

한 대와 비견될 정도로 불을 끄는 능력이 탁월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24시간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피를 도와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사설

추석물가 오름세 심상찮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밥, 과자, 김치 등 가격이 줄줄이 올라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에 '물가 상승을 부추킨다'는 비판이 많다. '집콕'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음료 소비가 늘었는데 이 시점에 가격을 올려야 하는 지적이 다. 게다가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채소, 쌀 등의 가격도 급등했다. 추석물가 상승세가 우려할 수준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더위 차량, 공회전 좋을까? 나쁠까? 무리한 여름철 차량 공회전 자체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그렇지않아도 무더운 여름철에 무리한 차량 공회전으로 이웃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욱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